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박현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jpark@kiep.go.kr, Tel: 3460-120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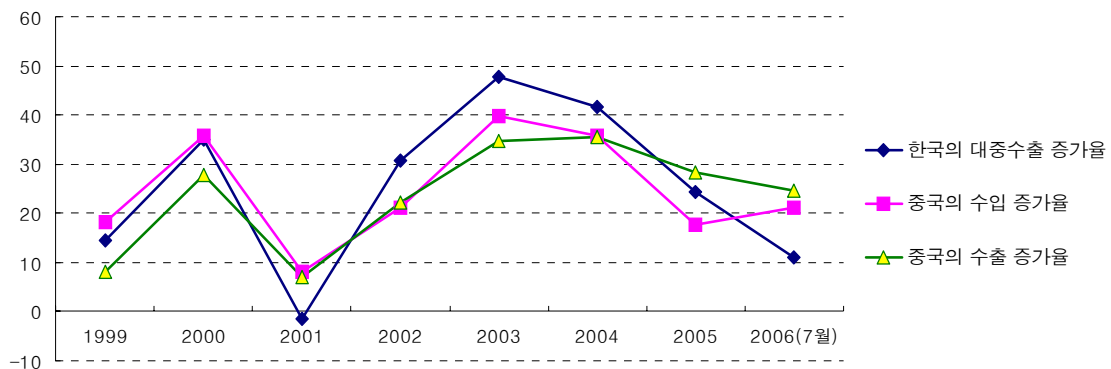
- 2003~04년 40%를 상회하던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 24.4%로 둔화된 데 이어 2006년 1~7월에는 10.9%로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의 수입증가율 하락이 2006년 들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만 줄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은 크게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 △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 둔화 △ 중국의 수요 하락과 수입 둔화 등 세 가지로 설명되며 이 원인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지속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확대에 대비한 무역정책 변화는 중국의 수요 감소를 가져와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 둔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국산화율) 제고와 수입대체 가능성이라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바,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변화와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 수출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유지되도록 국가 전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1.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세 둔화

- 2003~04년 40%를 상회하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 24.4%로 둔화된 데 이어 2006년 1~7월에는 10.9%로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한국 총수출 증가율의 두배 이상을 기록했던 대중 수출증가율이 2006년 1~7월에는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인 13.5%에도 못미치고 있음.
- 또한 2002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였던 중국의 대한국 수입증가율도 2006년(1~7월)에는 이를 하회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그림 1 참고).

그림 1.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과 중국의 수출입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더욱이 중국의 수입증가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수입증가율도 2005년에 저점을 통과한 후 2006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표 1. 중국의 대한국·일본·대만 수입 증가율

(단위: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1~7월)
중국 전체 수입	21.2	39.9	35.8	17.7	21.2
대한국 수입	22.2	51.0	44.0	23.7	17.2
대일본 수입	24.9	38.7	26.9	6.7	15.0
대대만 수입	39.3	29.6	31.2	15.3	2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 2006년(1~7월) 한국의 대중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컴퓨터,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고).
- 2005년 117%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도체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4.5%로 둔화되었고, 합성수지·무선통신기기 등도 전년동기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2.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별, MTI 3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2005년		2005년(1~7월)		2006년(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1,915	24.4	34,440	22.9	38,210	11.0
반도체	7,114	117	4,104	156.6	4,289	4.5
석유제품	3,254	23.0	1,560	12.6	2,733	75.2
컴퓨터	5,072	-5.1	2,777	-16.1	2,545	-8.3
합성수지	3,670	19.8	2,153	30.1	2,198	2.1
무선통신기기	3,708	5.8	2,092	6.4	2,187	4.6
자동차부품	2,693	55.1	1,475	50.7	1,683	14.1
석유화학 합성원료	2,470	36.3	1,447	49.4	1,680	16.1
철강판	3,413	11.0	2,149	24.4	1,582	-26.4
광학기기	3,820	113.3	1,856	78.6	1,515	-18.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6	90.1	310	20.5	1,174	278.5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 이러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크게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 △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 둔화 △ 중국의 수요 하락과 수입 둔화 등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음.

2.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

가.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¹⁾

- 중국은 부품, 반제품 등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조립한 후 최종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음.

1) UN 상품분류방식의 하나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방식에 따라 제품을 1차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 및 기타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방법은 한국 무역협회의 보고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와 전망』(양평섭, 2005), 수출입 통계는 Comtrade data base를 참고함.

- 2005년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7.7%(반제품 28.2%, 부품 29.5%)이고,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4%(표 3 참고).
- 중국의 수출에서는 최종재의 비중이 59%(자본재 26.4%, 소비재 32.6%)인 반면, 중간재의 비중은 38%(반제품 21.1%, 부품 16.9%)임.

표 3.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 변화

(단위: 비중, %)

구분	연도	전 품목	1차상품	중간재			최종재		
				소계	반제품	부품	소계	자본재	소비재
중국의 수출	2000	100.0	3.7	34.2	21.4	12.8	61.0	17.3	43.8
	2001	100.0	3.4	34.9	20.9	14.0	60.7	18.4	42.3
	2002	100.0	2.9	35.9	20.3	15.6	60.2	20.0	40.2
	2003	100.0	2.6	35.6	19.6	16.0	60.7	23.3	37.4
	2004	100.0	1.9	37.8	21.2	16.7	59.4	25.2	34.2
	2005	100.0	1.9	38.0	21.1	16.9	59.0	26.4	32.6
중국의 수입	2000	100.0	13.5	62.3	38.1	24.2	21.8	17.5	4.2
	2001	100.0	12.2	61.0	35.8	25.1	24.5	20.1	4.4
	2002	100.0	10.6	62.0	34.7	27.4	25.6	21.0	4.5
	2003	100.0	11.8	60.4	32.0	28.4	26.1	21.6	4.5
	2004	100.0	15.0	57.9	29.3	28.6	25.1	21.1	4.0
	2005	100.0	17.0	57.7	28.2	29.5	23.4	19.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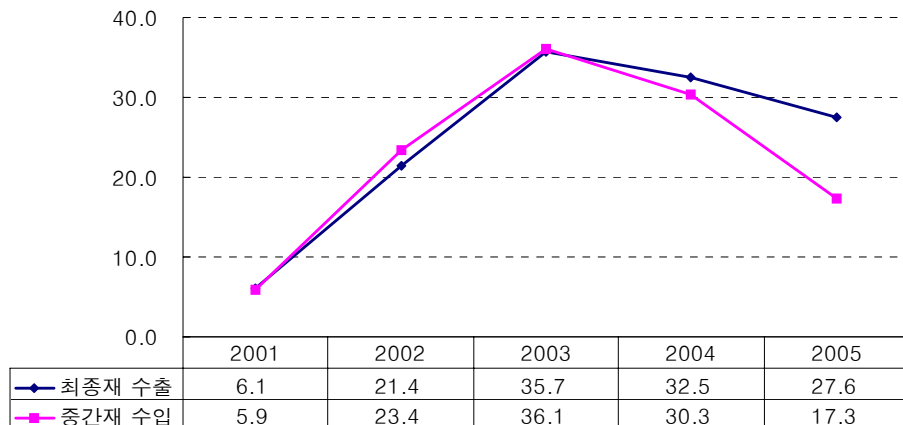
자료: Comtrade data base

-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상 중국은 가공무역의 특징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 구성비중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그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즉 2003년 이후 최종재의 수출비중과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낮아지고 있음(표 3 참고).
- 최종재의 수출비중 감소는 주로 소비재비중이 감소한 데서(2000년 43.8%에서 2005년 32.6%) 기인하며, 자본재의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2000년 17.3% → 2005년 26.4%)하고 있음.
- 최종재의 수출증가율과 중간재의 수입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최근 2년간 중간재 수입증가율 둔화폭이 최종재의 수출증가율 둔화폭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간재, 특히 반제품의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2 참고).

- 이는 향후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 확대에 따라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림 2. 중국의 최종재 수출증가율과 중간재의 수입증가율

(단위: %)



자료: Comtrade data base

나. 한국의 부품·소재 수출증가세 둔화

- 한국 기계산업진흥회의 부품·소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수출증가율이 2004년 이후 둔화되고 있음(표 4 참고).
- 2006년 1~7월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10.1%로 전년동기대비 21.9% 포인트 둔화됨.
- 특히 부품·소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전자부품, 제1차 금속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수송기계부품의 대중 수출이 부진한 상황임.
- 부품·소재의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부품조달 증가,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축소 및 중단,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 급증 등으로 볼 수 있음.

표 4.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증가 추세

(단위: 백만 달러, %)

품 목	2003년 1~7월		2004년 1~7월		2005년 1~7월		2006년 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섬유제품	469	5.5	519	10.5	619	19.3	594	-4.0
화학물 및 화학제품	2,635	20.9	3,901	48	5,124	31.4	5,453	6.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93	15.7	223	15.5	319	43.3	335	4.9
비금속광물	111	10.2	122	9.9	93	-23.8	99	6.8
제1차 금속제품	1,306	74.3	1,986	52.1	2,521	27.0	2,537	0.6
조립금속제품	74	110	100	36.5	133	32.1	152	14.8
일반기계제품	669	52.7	1,052	57.3	1,066	1.3	1,277	19.8
컴퓨터 및 사무기기	933	73.2	2,010	115.4	1,446	-28.1	1,167	-19.3
전기기계부품	613	42.6	945	54.2	1,323	40	1,803	36.3
전자부품	2,243	58.1	4,097	82.6	6,831	66.8	7,981	16.8
정밀기기부품	70	65.5	180	158.1	326	80.9	378	16.1
수송기계부품	395	540.1	1,026	159.9	1,534	49.6	1,719	12.1
소재 및 부품 전체	9,711	47.0	16,161	66.4	21,335	32.0	23,495	10.1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 통계』.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부품조달 현지화율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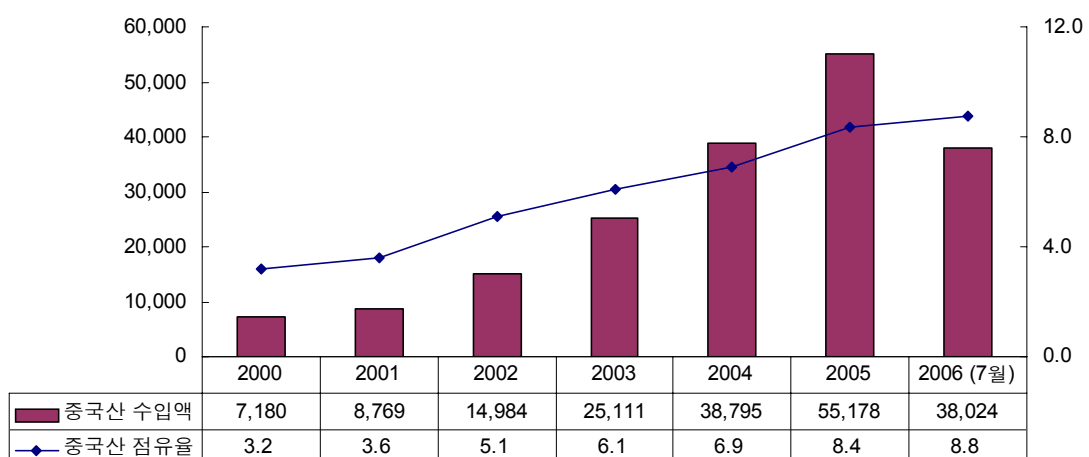
- 수출입은행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부품·소재 현지조달비중은 점차 확대된 반면(1999년 34.8% → 2002년 47.2%),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44.8% → 39.5%).
- 최근 KOTRA에서 발표한 재중 투자기업 Grand Survey 결과 역시 현재 원부자재 조달선은 중국(52.7%), 한국(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중국 투자기업들이 중국 진출 초기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던 데서 벗어나 원부자재 조달을 현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비중은 2005년 44.8%에서 2006년 37.8%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원부자재 조달계획 역시 현 상황을 유지(46.8%)하거나 중국 위주로 변경(51.2%)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전자부품과 수송기계부품(자동차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 등 일부 부품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 축소와 생산 중단이 부품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자동차부품과 컴퓨터부품의 경우 주로 재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 내수와 관계없이 진출기업의 생산량 감소로도 대중 수출이 부진할 수 있음. 예컨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의 수출은 선양 삼보컴퓨터의 생산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침.
- 2006년 1~7월 사이 중국의 전자부품과 수송기계부품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약 30%와 50%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2005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컴퓨터 및 컴퓨터부품의 경우도 중국의 수입이 11%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최근 중국산 제품이 국외로 수출되었다 다시 중국으로 수입되는 역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제품 구성상 부품과 반제품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수출 증가율 둔화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은 수출환급세의 적용을 받아 가격이 저렴해진 부품을 구입하려는 기업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약 60%에 이르는 점에서 주로 외자기업의 부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중국 수입총액 중 중국산 제품의 액수가 급증하고 있음(그림 3 참고).

그림 3. 중국 수입시장의 중국산 제품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전자 기계 및 부품, 기계류, 광학기기 등이 상위 3대 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구조에서 부품의 수출비중은 2000년 19.7%에서 2004년 40%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품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2004년 18.8% 포인트, 2005년 28.3% 포인트 둔화) 속도가 전체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2004년 6.3% 포인트와 2005년 17.3% 포인트 둔화)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중국산 컴퓨터부품,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집적회로 등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각각 33.9%, 37.2%, 41.5%, 7.5%를 기록하고 있음(2006년 상반기).

다. 중국의 수요 하락과 수입 둔화

- 대중 수출품목을 HS 4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의 수입 하락과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품목은 합성수지, 화학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으로 나타남(표 6 참고).

표 6. 주요 품목별 중국의 수입증가율 및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단위:%)

연도	합성수지		화학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중국의 수입	한국의 대중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대중 수출	중국의 수입	한국의 대중 수출
2000	22.5	24.0	76.2	46.9	38.9	82.4
2001	10.0	3.8	7.9	11.7	10.3	-22.1
2002	7.6	2.6	47.2	27	35.2	286.6
2003	13.9	25.1	22.8	31.7	69.6	82.5
2004	27.2	41.7	55.1	63.8	27.1	32.4
2005	14.1	15.7	20.4	31.7	24.3	36.8
2006(1~7월)	-41.5	-41.3	15.2	18	11.1	-1.7

주: HS 4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 둔화는 중국내 경기 변동, 시장수요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함. 즉 관련 부품의 재고액 증가, 주요 품목의 생산증가율 둔화, 한국의 대중수출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의 생산능력 확충 등으로 볼 수 있음.
- 중국내 부품별 재고액 증가율의 경우, 2003년 이후 플라스틱, 통신·컴퓨터 장비의 재고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외에 한국의 대중 수출둔화품목인 운송장비, 전자기계 및 장비 등의 재고액 역시 증가하고 있음(표 7 참고).

- 통신·컴퓨터 장비와 운송장비의 재고액 증가율은 2005년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2006년 상반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7. 주요 부품별 재고액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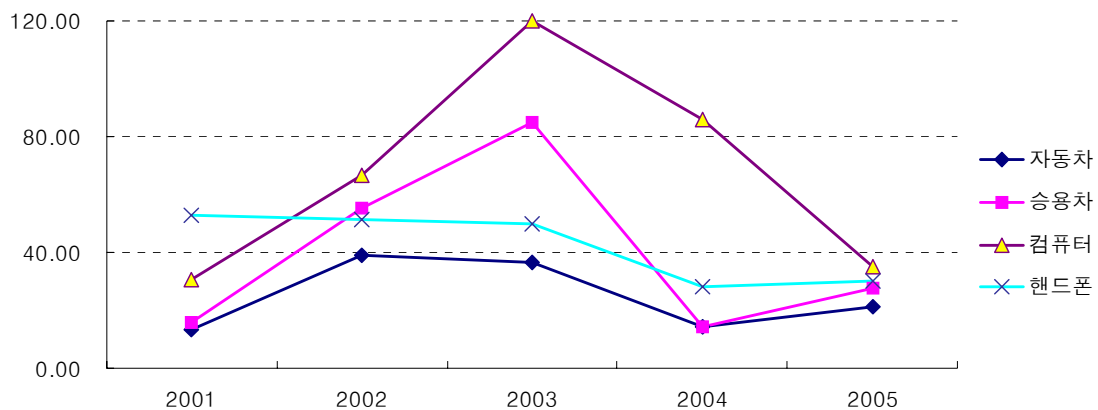
	플라스틱제품	통신·컴퓨터 장비	운송기계 장비	전자 기계와 장비
2001년	9.3	7.0	7.4	12.5
2002년	8.8	0.4	6.4	4.2
2003년	15.5	31.7	21.2	7.4
2004년	17.1	23.5	24.1	19.7
2005년	24.9	7.4	17.7	23.9
2006년 6월	20.4	17.2	20.4	10.1

자료: CEIC

- 관련 부품의 재고액 증가는 중국 내 생산 증가율 둔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함(그림 4 참고).

그림 4. 주요 품목별 생산량 증가율 추세

(단위: %)



자료: CEIC

-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 주요 품목인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의 수출비중은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와 중국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합성수지의 경우 플라스틱 재고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중국 합성수지의 수입의존도는 1998년 60%에서 2004년 52.1%로 낮아졌음.
-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현황과 전망은 [표 9]와 같음.

표 9.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급 현황과 전망

(단위: 백만 톤, %)

품목	구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에틸렌	생산	775	1,560	15.0
	수요	1,850	2,550	6.6
	자급률	42	61	-
합섬원료	생산	750	1,200	9.5
	수요	1,850	2,850	5.8
	자급률	41	42	-
합성고무	생산	140	220	9.9
	수요	241	320	9.0
	자급률	58	69	-

자료: 中國化工信息; KIEP,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에서 재인용함.)

3.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부품 및 소재 수출 둔화 그리고 중국의 수요하락으로 인한 수입 둔화가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원인들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성장을 기회로 활용하여 왔으나 부품과 소재 부문의 비중이 높고 소비재의 비중이 낮은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상 중국의 경기 변동과 정책 변화,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대중 수출 둔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향후 중국의 공급과잉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등으로 중국의 수요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증가율 역시 둔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중국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중국의 재고조정대상분야의 경우 대중 수출 위축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가 현저한 전자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화학물 및 화학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품목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비중이 높아 중국내 경기 변동이나 경쟁구도 변화가 우리나라 산업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품목별 수출에 있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주로 중국내 한국기업을 대상으

로 수출하는 일부 부품의 경우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으로 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2005년 1,018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06년에도 약 1,5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진국의 통상압력 확대에 대비한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임. 이는 우리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 중국을 경유해 선진국(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해왔음. 이러한 중·미간 무역불균형은 세계경제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중국은 과도한 수출증가를 막기 위해 수출환급세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위안화 정책의 경우, 위안화 환율의 빠른 절상을 위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최근 외환시장의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이 사상 최고치인 7.9342위안을 기록하기도 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대체와 국산화율 제고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중국의 수입대체가 아직까지 저급기술 위주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해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R&D 투자 강화 및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될 경우 중간재의 중국내 생산이 촉진되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둔화될 여지가 있음. 또한 중국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할 가능성도 충분함.

- 따라서 중국과의 공정분업을 좀더 체계화하여 한국이 고부가가치 공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술집약도와 제품통합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거점이 보다 유리할 것임. 이러한 공정분업체제 구축은 국내의 높은 기술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함.

- 현실적인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중심산업인 철강, 전자,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조립산업의 수명을 늘려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기초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조립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산업기술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주체는 주로 외자기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중국의 기술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기술역량 강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초역량을 동원하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한편 ASEAN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은 자동차·전기 및 부품·TFT-LCD 설비·반도체 설비 등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양국이 제휴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